



소비자가 좋은 와인을 잘 고를 수 있게 하는 잣대
우두희 델리세 106 매니저

전문가들이 뽑아주는 올해의 와인 트렌드
양윤주 하프패스트텐 오너 소믈리에

KWC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와인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국내 유일 와인심사
김협 한국 국제 소믈리에 협회 이사

국내 소비자들이 와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만드는 자리
최준선 소믈리에

Listen from KWC Juries

KWC는 국내 와인 산업은 물론 수출 와인의 평가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행사다. 16번째 KWC 개최를 맞아, 여러 번에 걸쳐 심사에 참여해 왔던 심사위원들에게 KWC가 갖는 의미에 대해 물었다.
글·정리 최준영 사진 정영수, 박현영

가려진 장막을 거둬 개성 있고 표현력 강한 와인을 선사하는 손길이자 무대 왕도열 애플워빙 대표

대중이 믿고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 와인 컴피티션 강창신 주안상 대표

한국의 <Wine Spectator>이자 로버트 파커, 제임스 서클링 황승호 인버노 대표

와인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자 표현 김시보 (주)아이고그림 와인 디렉터

누구보다 한발 빨리 와인의 흐름을 가능하게 돕는 가이더 정락미 에비트 매니저

품질 좋은 와인을 엄선하여 소비자들의 와인구매 기준점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 와인 컴피티션 김인규 소셜베뉴 라움 소믈리에

와인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와인의 축제의 장 김혜영 루나피에나 대표

소비자를 생각하는 와인 평가의 장 장운경 몽로 총괄 소믈리에

한국 와인문화를 선도하고 당해 와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일한 국내 대회 이동규 해비치 콜링힐스호텔 식음팀장

소비자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국내 와인 시장의 지표가 되어주는 와인 경쟁대회 김형욱 마일즈와인테이스팅바 매니저

한국의 <Wine Spectator> 배윤하 까사 델 비노 소믈리에

한국 유일의 와인 소비자들의 가이드이자 정보지 신선용 투바이투 지배인

국내 소비자의 와인 맛 지도 이재민 알리고떼 소믈리에

한국의 와인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깊은 와인 컴피티션 김성국 콘래드 서울 소믈리에

새롭고 흥미로운 와인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와인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주형 (주)오투아이앤디 소믈리에

**K: Knowledge
W: Wine
C: Current**
국내 와인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와인 문화의 장 이경진 와인주막차차 와인총괄팀장

국내 와인애호가와 소비자가 좋은 와인을 선택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해주는 국내 유일 와인 컴피티션 정우영 알리고떼 소믈리에

국내 와인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맛이 훌륭한 와인을 찾아 소개하고 제시하는 이정표이자 등대 김현수 르 파르 대표



품질 하나로 와인의 다양성을 대중에게, 소믈리에에게, 와인업계에 소개하는 멋진 프로젝트 이소리 웨스틴 조선호텔 더 나인스 게이트 소믈리에



새로운 와인을 발견하는 컴피티션이자 와인 선택을 위한 단축기 김형남 힐튼 부산 대리

참가 와이너리와 심사위원 모두에게 만들어 주는 새로운 기회 김주용 임프레션 매니저

소비자들의 합리적 와인구매를 선도하는 공정한 블라인드 테이스팅 최영준 현대 그린푸드 EATALY 매니저

소믈리에와 일반 소비자에게 와인 트렌드와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와인 컴피티션 한희수 SPC 외식사업부 소믈리에

국내 와인산업의 '핵심씨'를 발굴해 내는 한국 최고의 와인 컴피티션 이창근 코르테 오스테리아 매니저



심사위원들의 테이스팅 노하우

좋은지 나쁜지 엇비슷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와인 맛을 느끼는 과정과 방법은 전부 제각각이다. 심사위원들은 각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와인을 평가할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

배운하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먼저 생각하며 테이스팅한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스타일보다 심사 결과를 믿고 구매한 고객의 만족을 고려하는 편이다.

최준선 대중에게 선보일 와인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테이스팅하는 와인이 현재 국내외에 유행하는 스타일에 부합하는지 먼저 평가하고 그 후에 와인의 완성도를 본다.

황승호 업장을 찾은 고객들이 만족할만한 와인인지에 기준점을 두고 테이스팅한다.

이재민 개인적인 판단에 더해, 와인 소비 트렌드를 생각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테이스팅하는 편이다.

개인 취향은 배제, 나만의 절차를 설정

이소리 한 플라이트의 모든 와인을 비교하며 동시에 테이스팅하는 방식을 취한다. 향의 강도와 복합미, 맛의 표현력, 그리고 와이너리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김성국 테이스팅할 때 맛있다, 트렌디하다는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본래 의도된 스타일을 충분히 표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한희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둔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밸런스를 보고 두 번째로 잠재 숙성력을 파악하는 식으로 테이스팅하는 편이다.

신선용 많은 종류의 와인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향과 맛, 색을 가볍게 체크한다. 그 다음 단계로 심도 있는 테이스팅을 이어가면서 포인트를 파악한다.

장운경 내 입맛에 맞춰 시음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점에 따라 와인을 판별한다.

김현수 많은 와인을 동시에 테이스팅할 때는 색상과 향을 체크하면서 퀄리티와 컨디션이 좋은 와인은 당기고 그렇지 않은 와인은 뒤로 밀어내는 절차를 두세 번 반복하면서 필터링을 해 나간다.

첫인상이 중요

우두희 처음 오픈했을 때 와인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 가는 향과 맛을 중시한다.

김인규 와인의 첫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양한 와인을 맛보다보면 혼선이 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첫 향기와 맛이 제일 정확하다고 느낀다.

김협 단시간에 많은 와인을 테이스팅해야 할 때는 처음 올라오는 와인향의 복합미에 중점을 둔다. 이후 향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지, 여운이 얼마나 길게 잔잔히 이어지는지를 평가한다.

왕도열 와인은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특성을 보여준다. 많은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처음 1, 2초 동안에 와인에서 느껴지는 맛을 파악한다.

최영준 와인 본연의 캐릭터를 보기 위해 반드시 공기와 접촉시키기 전의 향을 먼저 맡는다. 그 다음 스왈링을 통해 공기와 접촉 시킨 후 변화하는 풍미를 느낀다.

경험과 배경지식을 중시

김주용 와인은 아는 만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새로운 품종과 생산지역, 흥미로운 와인메이커에 대해 늘 호기심을 가져야 테이스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동규 편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와인 테이스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완성한 후 열린 마음으로 와인의 다양성에 도전해 보는 게 좋다.

김형욱 평소에 다양한 허브나 향신료, 야생 꽃, 한약재 등을 직접 구해 향을 맡아 본다. 내가 사용하는 용어와 비교하며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다.

정우영 정말 많이 마셔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포도 품종의 특징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씩 제외해 나가면서 테이스팅한다.



1. Dierberg Chardonnay

KWC 2010 Trophy White

수입사 SJ와인

수상와인인줄 모르고 마시게 됐는데, 특유의 은은한 들깨 향과 과실의 조화가 인상 깊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미국 화이트임에도 산도가 잘 받쳐줘 훌륭한 밸런스를 보여준다. 배운하

4. Castel Mimi Classic Merlot

KWC 2019 Silver

수입사 WST통상

힐튼 부산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레드 와인 중 하나다. 합리적인 가격, 미지의 생산지 등 충분히 매력적인 와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한다. 김형남

7. Johanneshof Reinisch Rotgipfler

KWC 2019 Gold, KWC 2017 Bronze

KWC 2016 Trophy White

수입사 LB

로트기플러는 생산량이 매우 적은 오스트리아 토착품종이다. 이런 와인이 트로피 화이트를 수상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만큼 한국 와인시장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주용

향이 화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다. 밸런스도 좋고 감칠맛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마셔도 질리지 않는 청량감과 바디감이 좋다. 요즘같이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시기 아주 좋은 와인이다. 신선용



심사위원들의 원픽 KWC 수상 와인

수상와인을 가려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수많은 와인을 맛봐야만 한다. 고르고 골라낸 수상 와인 중, 정말 인상 깊었거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와인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이유를 들었다.

2. Domaine Montrose Rose

KWC 2018 Trophy Rose

수입사 국순당

KWC 심사를 진행하며 여러 선후배 소믈리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와인에 대해 긴박감 넘치는 토론을 벌였다. 세대 간 트렌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김성국

5. Deutz Brut Classic

KWC 2019 Trophy Sparkling

수입사 레뱅드매일

작년 심사때 이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이 샴페인 한 잔이면 정말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알고 보니 도츠 브루티였다.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와인이다. 한희수

3. Coto De Imaz Gran Reserva

KWC 2019 Gold, KWC 2012 Bronze

수입사 LB

이전 근무지에서 많이 판매했던 친숙한 제품이다. 그랑 레세르바지만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 와인을 보고 있으면 옛 추억들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진다. 나에게도 벨 에포크 같은 와인이다. 김현수

6. Beronia Tempranillo Especial

KWC 2016 Trophy Red

수입사 문도비노

전문 시음회에서 테이스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맛이 좋았다. 마음에 들어 매일 후 업장에서 고객에게 KWC 수상 와인으로 추천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난다. 이재민





9. Joseph Desruets La Bacchus

KWC 2014 Trophy Sparkling
수입사 샴페인 1888

조셀 데뤼에가 국내 수입되기 전, 와이너리 측 관계자를 우연히 만나 여러 레인지를 테이스팅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은 와인이라 바쿠스였는데 얼마 뒤 트로피를 수상해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이주형

10. Domenico Clerico Barolo

KWC 2019 Silver, KWC 2017 Silver
수입사 레벳드매일

여타 바롤로와 다르게 거칠고 투박한 탄닌 대신 자가 고운 탄닌이 특유의 초콜릿 향과 함께 오랫동안 입안에 머문다. 캐릭터가 잘 드러나고 어렵지 않아 와인 바에서도 추천하기 좋은 와인이다. 김형욱

8. Pillitteri Reserve Vidal Icewine

KWC 2019 Gold, KWC 2014 Trophy Icewine
KWC 2010 Bronze, KWC 2009 Gold
KWC 2008 Bronze

수입사 하이트진로

필리터리 등 스위트와인은 거듭된 테이스팅에 지친 혀를 확 달래주었다. 올해 필리터리 관계자의 한국 방문 세미나에 참가해서 와이너리의 다양한 정보를 듣고 나니 훨씬 더 정이 가는 와인이 되었다. 장운경



16. Pierre Gaillard Condrieu

KWC 2017 Bronze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북부 론 와인의 거장, 피에르 가이아르의 진정성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 기억에 남는다. 김혜영

17. Vinarte Prince Mircea

KWC 2016 Gold
수입사 미수입

빈아르페는 루마니아 와이너리다. 4년 전, 루마니아 와인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대사관 관계자에게 KWC 출품을 권유했다. 그 결과 출품 첫 해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와인이다. 김협

18. Andeluna Pasionado Cuatro Cepas

KWC 2018 Best Argentina Red
수입사 와이벨

새롭고 신비로운, 신세계 와인에서 보이는 색과 향, 맛에 놀라고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이 와인도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준 와인이다. 왕도열

12. Chateau Lecusse Gaillac

KWC 2018 Silver, KWC 2017 Gold
KWC 2016 Gold, KWC 2015 Gold
수입사 타팩스 인터내셔널

트로피같이 엄청난 상을 받은 와인은 아니지만, 항상 꾸준한 품질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한다. 가성비 와인을 꼽을 때 빠지면 안 되는 와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창근

13. Ktima Gerovassiliou Viognier

KWC 2019 Gold, KWC 2018 Best Greece White
KWC 2016 Gold
수입사 헬레닉와인

무더운 여름, 화사한 꽃향기와 잘 익은 과일 풍미가 인상적이었던 와인이다. 콩드리우 비슷한 느낌과 크리미한 질감, 묵직한 바디감이 기억에 남는다. 정우영

14. Chateau de la Vieille Chapelle Cuvee Tradition

KWC 2018 Gold
수입사 레벳드매일

원래부터 좋아하는 와인이었다. KWC 2018 심사 때 속으로, '어? 이거 흑시?' 하면서 몰래 웃었던 기억이 난다. 편하게 즐기기에 쉬운 와인으로, 퍼포먼스와 복합미가 가격에 비해 굉장히 훌륭하다. 정락미

19. Gatt Eden Springs High Eden Riesling

KWC 2019 Gold, KWC 2018 Trophy White
KWC 2017 Gold, KWC 2015 Silver
KWC 2013 Seal of Approval, KWC 2012 Silver
수입사 까브드뱅

KWC 2018 트로피 수상 와인이다. 당시 심사위원 사이에서, 이제 잔당감 있는 독일 리슬링 말고 드라이한 호주 리슬링을 소비자에게 소개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던 특별한 기억이 있다. 양윤주

20. Masi Campofiorin

KWC 2019 Silver, KWC 2018 Bronze
KWC 2017 Silver,
KWC 2016 Gold
수입사 레벳드매일

아마로네 만드는 방식을 일부 활용해서 만든 와인이다. 소량의 건조 포도가 포함돼 숙성기간을 거친 후에는 아마로네보다 좀 더 마시기 쉬워지고 강렬한 풍미와 농익은 과실향을 갖게 된다. 최영준

21. Gatt High Eden Cabernet Sauvignon

KWC 2018 Gold, KWC 2017 Silver,
KWC 2015 Best Australia
KWC 2014 Bronze, KWC 2012 Gold
수입사 까브드뱅

가트는 KWC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는 와이너리다. KWC 심사를 통해 가트를 잘 알게 됐고, 호주 레드 와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이소리

15. Wirra Wirra Woodhenge Shiraz

KWC 2019 Gold, KWC 2018 Bronze
KWC 2017 Silver, KWC 2015 Gold
KWC 2010 Bronze, KWC 2009 Silver
KWC 2008 Trophy
수입사 LB

다크 초콜릿, 바닐라, 블랙베리 향의 조화와 부드러운 탄닌이 행복감을 주는 와인이다. KWC 2008 트로피 와인으로 선정되었을 때 처음 접하게 됐다. 12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때의 신선한 충격이 기억에 남는다. 이종규



22. Monte da Ravasqueira Syrah Viognier

KWC 2019 Trophy Red, KWC 2018 Silver
수입사 루나

결선심사 때 조원들이 만장일치로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가 끝나고 와인을 공개했을 때 다들 놀라며 박수치던 재미난 기억이 있다. 우두희

결선 당시 플라이트가 생생히 기억난다. 전체적인 조화가 뛰어나 인상적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와인을 접해서 와인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했으면 해 추천하는 와인이다. 김인규

23. Champagne Deutz Blanc de Blancs

KWC 2018 Trophy Sparkling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식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포지션에 매칭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샴페인. 섬세한 기포와 신선한 산도를 가지고 있어 식전주로 부족함이 없고 생선 요리와도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 기억에 남는다. 최준선

당시 와인 컨디션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조밀한 기포가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경진

24.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KWC 2019 Gold, KWC 2017 Gold, KWC 2011 Silver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작년 대구 인비노에서 열린 KWC 2019 수상와인 시음회에서 인기가 좋았던 와인이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청량하게 즐길 수 있어 유달리 더운 '대프리카'의 와인 애호가들에게 권할 만하다. 황승호

KWC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을 가진 와인이다. 밸런스 와 퀄리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데일리용으로 부족함이 없다. 강창진